

People & Life

“산에 인간의 흔적 남기지 맙시다”

무등산서 ‘클린 마운틴 캠페인’ 한왕용 대장

“산의 자연환경이 자꾸만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은 산악인들과 그들을 산에 오르도록 이끈 사람들, 등산 관련 단체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도 다같이 힘을 합쳐야겠어요.”

지난 2003년 한국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11번째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고 산생태지킴이로 인정 2막을 일컫는 한왕용 대장이 12일 무등산에서 ‘클린 마운틴(Clean Mountain) 캠페인’을 벌였다. 한 대장은 이날 낮 12시부터 광주시산악연맹 임원 및 산악구조대원, 시민들과 함께 6시간 동안 원효사~임석대 구간을 왕복하며 쓰레기를 치웠다.

한 대장은 14차 완등 직후 지난 해까지 자신이 올랐던 히말라야 거봉들을 다시 오르며 청소 등반을 벌여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02년 브로드피크 완등 때 인근 K2봉 등반에 나섰던 일본팀 대장이 제2캠프에서 주워온 캔에서 나온 음식이라며 깃털, 장아찌 등을 내놓는데 강풍이 쪼다 녹슬어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물어보니 한국원정대가 캠프에 버린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 등반이었다.

올들어서는 전국 곳곳의 산들을 돌며 ‘클린 마운틴 코리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등산인구 1천만시대를 맞아 ‘산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맙시다’는 LNT(Leave No Trace) 운동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등산로 외 셋길로 가지 않기, 정해진 곳에서만 야영하기, 동물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기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 보스턴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오기도 했다.

“클린 마운틴’이 치료의 개념이

라면 ‘LNT운동’은 예방의 개념이죠.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역사와 10만에 가까운 회원이 지닌 산악단체 모임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참가해 기본부터 익히는 모습을 봤어요. 산과 산행에 대한 인식,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운동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클린 마운틴운동의 확산과 등산 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2차 히말라야 청소 원정에 나서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 대장은 “무등산은 시민들의 오랜 자발적 보호운동 덕분에 생태가 가장 잘 보존되고 깨끗하기로 소문나 있다”며 “그 노하우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참가자들은 계곡과 전방에 주변 곳곳에서 적지 않은 쓰레기를 치워야 했다.

(주)에델바이스 아웃도어 밀레가 주최한 이날 캠페인에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김인주 운동본부장이 길라잡이로 나섰다. 최경주 광주시산악연맹 회장과 텔런트 김유석씨, 가수 신현대씨, ‘클린 마운틴 코리아’ 회원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국 고교생 ‘5·18과 교육’ 토론회 대상 천안 북일여고 이세정·김은송양

“국공립 통합네트워크 통해 대학교육 바뀌어야”



“5·18민중항쟁은 정권의 폭압에 광주시민들이 스스로 맞서 싸웠던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초를 닦았던 항쟁입니다. 광주시민들처럼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고등학생들도 직접 나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11~13일까지 3일간 광주시 서구 삼무동 5·18기념재단 등에서 열린 제8회 전국고등학생 토론회에서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받은 천안 북일여고 이세정(17·사진 왼쪽)·김은송(17)양은 자신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18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팀명 ‘세송이’로 참가한 이들은 3일간 3차례의 토론회 끝에 본선에 진출한 30팀을 제치고 대상을 획득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다들 생각이 같았지만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대학의 선진화, 즉 국공립 통합네트워크를 통해서 서열화되고 경쟁체제가 심화된 대학교육을 바꿔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세송이’ 팀은 전인 교육은 물론 전문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교육시스템을 비판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다니

고 싶은 학교와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대회 준비를 위해 같은 반인 이들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다. 논리를 펴기 전 자신들만의 주장이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다. 평소 신문 읽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 등교할 때 듣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도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

이세정양은 “나만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불만이나 고민들을 메모장에 생각날 때마다 꼼꼼히 적는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신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 및 종합한 후 문장을 만들어 써보는 습관도 논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5·18 민중항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진실도 현장체험과 토론을 통해 온몸으로 체험했다.

김은송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연대를 통해 저항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배웠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된 만큼 제 꿈인 유엔(UN)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15세 소년이 흥보가 완창

두암중 김건희군

15세 소년이 성인도 하기 어려운 판소리 완창 무대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젊은 소리꾼 김건희(두암중 3년)군은 지난 12일 광주 빛고을극단수관에서 ‘흥보가’ 완창 무대를 가졌다.

명창 이난초 선생으로부터 힘차고 호방한 소리가 특징인 동편제 ‘흥보가’를 사사한 김군은 이번 공연에서 ‘흥보 박 타는 대목’ 등 흥보가의 전 대목을 3시간여에 걸쳐 들려줬다. 이날 무대의 고수는 김형석씨가 맡았다.

김군은 제7회 한국전통판소리 주동부 우수상, 2009장흥 전통 가무와 고법 은상, 제7회 전국승달 대제전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선진교통문화 운동본부 협약식



광주신세계(대표 이정환)가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 운동본부(대표 김양균)와 지난 11일 오후 광주신세계백화점 9층 아카데미 다목적홀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여수산단 와이엔텍, 추석 이웃돕기 성금



여수국가산단내 (주)와이엔텍 이성현 대표이사(가운데)와 유병화 사장(오른쪽)은 지난 11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불우이웃과 소년소년 가정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성금 1천만원과 쌀 20kg 200포를 여수시에 전달했다. <여수시 제공>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에 ‘레바논’

제66회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수상작으로 이스라엘 새뮤얼 마오즈 감독의 ‘레바논(사진)’이 선정됐다.

12일 저녁(현지시간) 폐막된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레바논’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이스라엘 젊은 병사들의 시각에서 묘사한 반전영화이다.

마오즈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나는 이 작품을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

서 살아가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멀쩡하게 일하고 결혼하며 아이들을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은 그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박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당시 21살의 젊은 신병으로 참전했던 마오즈 감독은 자신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탱크 안에서의 밀실공포증



의 전염 등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냈다. 이스라엘의 침공은 20여년 동안 지속된 장기간의 점령으로 이어졌고, 마오즈 감독 역시 25년간 고통스런 기억에 시달렸다. /연합뉴스

개그맨 정형돈 - 방송작가 한유라 결혼

개그맨 정형돈과 방송작가 한유라가 13일 오후 2시 서울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화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동료 등의 축하 속에 열린 이날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대신 나호열 시인이 정형돈 부부를 위해 특별히 쓴 축시를 낭독했다.

사회는 개그맨 유재석이, 축가는 가수 김중국과 바다가 맡았다.

정형돈과 한유라 커플은 신혼 여행은 하와이로 떠날 예정이다.

둘은 지난해 SBS ‘미스터리 특공대’의 출연자와 작가로 만나 교제를 해왔다.

2002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정형돈은 ‘개그콘서트’, ‘폭소클럽’, ‘논스톱 5’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무한도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CF 모델과 텔런트를 했던 한유라는 방송작가로 전향, 최근에는 MBC ‘오늘밤만 재워줘’의 구성 작가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이석형 함평군수 밀알 중앙회 부총재 추대

이석형 함평군수가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밀알 중앙회 부총재로 추대됐다.

이 군수는 지난 1986년부터 밀알회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며 밀알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해왔으며, 지난 8일 위촉패를 받았다.

1958년 어려운 농촌을 부흥시키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자는 의지를 갖고 출범한 밀알 중앙회는 ‘밀알



체가. /함평=황은화기자 hwang@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 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밀알 정신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체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4일(월) 오후 6시30분 한우가(서광주 우체국 건너편) 062-373-2639.

▲조대부고 제15회 동창회(회장 장흥수) 월례회=15일(화) 오후 6시 30분 임동(선아 ICK 3층 15회 동창회 사무실) 062-523-0015.

▲재광 전주상고 동문회(회장 서동철)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회사당(오치동 한전빌) 010-4535-6688.

▲대동고 제14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19일(토) 오후 6시 신양파크호텔. 011-629-2730

종친회

▲곡부공씨 광주·전남 종친회(회

장 공양진) 9월 월례회=14일(월) 오후 6시 문흥동 사랑방. 010-9112-919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 지원사업=위기지원(출산, 양육, 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 생활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http://jjdonggf.familynet.or.kr/)

▲만성질환관리·영양·유증 및 스트레스·유증관리·흡연과 금연 강의=12월31일까지. 대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일반 및 집중관리 등 특화자. 두암보건지소 2층 보건교육

실. 062-410-8195.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심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9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

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모집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협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광주·전남 생태귀농학교 학생모집=9월15일~11월5일(매주 화·목·오 7시~9시) 광주 가톨릭 대학교 평생교육원 농업·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Cafe.daum.net/landlovers). 062-373-6183.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견강요법 강좌(자연치유력 향상 프로

그램) 수강생 모집=1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황새추구클럽=축구에 관심있는 신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 (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거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사랑넷 봉사단=평생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체교정 자격증반 모집=근육맞사지, 수기 요법으로 소생술(카이로프랙틱) 교육기간 9월 10일~12월 17일(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1일까지 평생교육학과에서 접수. 062-670-2167, 010-6426-5905.

▲꽃골프 친선경기 및 회원모집=발로 발을 차 흙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문해 한글과점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중·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원불교 문화센터 3기 회원 모집(9월 1일 개강)=사예(월, 수 오전 10시), 요가(월, 수 오전 10시), 다도(목 오후 2시), 독서논술지도(목, 오전 10시 30분), 노래교실(화 오후 2시), 규방공예(화 오전 10시), 수심결 강의(수 저녁 7시 30분) 쌍촌동 원불교총서. 062-232-7223~4.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하실 분 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주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

15만원), 초보·경험자 우대. 062-681-7770.

부음

▲김광열씨 별세 병규·용규·종욱·종삼·종순·종남·삼순씨 부친상=발인 15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박영섭씨 별세 찬재(사업)·기동(전 기아자동차 부장)·정복(전 고려개발)·기석(신용보증기금 부장)·기진(기아자동차 부장)·기순·옥희씨 부친상 전광준(사업)·심방섭(한전 영광노조위원장)씨 부부상=발인 15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두번 슬로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선 국민생활서비스 프리드 선진국형 주택시스템 현대중입상조 가업문화 1566-4499